

삼성항공 F-16 전투기 생산 기념식 가져

삼성항공은 11월 7일 경남 사천공장에서 국산전투기 생산 기념식을 갖고 공군에 정식 인도했다.

이날 F-16 전투기 생산 기념식은 이양호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장성과 이버선 美 7공군사령관등 주한 외국인, 이대원 삼성항공 부회장 등 3천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치뤄졌다.

동 전투기는 정부가 지난 86년 차세대전투기를 국내에서 생산키로 결정한지 12년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동기종의 최신버전인 블랙52에 해당한다.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LG정밀, 기아기공, 현대정공 등 국내 100여 업체가 참여한 국산 F-16 전투기는 아간에 초 저고도를 유지하며 침투할 수 있는 공격장비인 랜턴과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AMRAAM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공군의 F-16 총 도입물량은 120대인데 지난 92년 1단계로 완제기 12대를 도입했고, 2단계에서는 부품을 들여와 36대를 국내 조립한다. 최종 단계인 제3단계에서는 국내에서 부품을 직접 제작하여 72대를 생산토록 되어 있다.

중국 장쩌민(江澤民) 주석 방한,

중형항공기 개발 조기착수기로 합의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11월13일부터 17일까지 4박5일간의 한국 방문기간중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을 비롯한 한중

산업협력을 조기에 착수기로 합의했다.

한중 양국 정상은 장주석의 이번 한국방문을 계기로 정치적 사항 뿐아니라 경제협력방안으로 중형항공기 공동개발 조기착수, 원자력 자동차분야 협력, 러시아 가스 전개발 등을 적극 모색키로 하는 한편 통신, HDTV의 핵심부품 개발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유엔 및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의 교역량은 92년 63억8천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16억6천만 달러로 급증했는데 올해는 9월까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 119억달러에 이르러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제3의 교역국으로 뛰어 올랐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다섯번째 교역국이 되었다.

국방부, T-38 훈련기 30대 임대키로

KTX-2 고등훈련기 개발 고려

국방부는 11월 9일 공군 전투기조종사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미국으로부터 고등 훈련기인 T-38기 30대를 임대해 운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부족한 고등훈련기 확보를 위해 △영국의 호크기 20대를 구매하는 방안 △매년 조종사들을 미국으로 비행연수보내는 방안 △T-38기를 임대하는 방안등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최근 이정린차관 주재로 훈련기 획득심의회의를 개최, 임대방안을 최종 확정짓고 이를 공군에 통보했다.

임대방식으로 선택한 이유로는 오는 2003년 한국형 고등훈련기(KTX-2)가 개발되기 때문에 다량의 훈련기를 새로 사들이는 것은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호크기 23대구매가격이 3억불인데 반해 T-38훈련기 30대를 리스할 경우 임대의 경우 1억불이던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창공-91 시뮬레이터 개발완료해

대한항공은 자사가 개발한 창공-91 소형항공기의 모의비행훈련장치(Simulator) 개발을 완료하고 10월 25일 대한항공 해운센터 빌딩에서 시제품을 발표했다. 동 시뮬레이터는 대한항공이 통상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91년부터 총16억원을 투입,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에서 4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창공-91의 비행특성을 동일하게 구현하여 비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훈련이 가능토록 국산화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상품화 과정을 거쳐 국내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은 물론, 향후 항공기 분야를 비롯한 자동차, 선박, 원자력발전소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시뮬레이터 개발에 대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개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중형항공기의 시뮬레이터 개발 등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처, 우주항공조정관 신설

과학기술처는 효율적인 과학행정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개발조정실의 기계소재 연구조정관과 전기전자 연구조정관을 통합해 기계전자연구 조정관으로 하고 우주항공부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우주항공연구조정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기술진흥국의 엔지니어링진흥과를 기술인력국으로 이관하는 한편 현재의 기술진흥국을 기술정책국으로, 기획총괄과를 정책기획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출연연구소의 육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관리소가 수행해 오던 업무 중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업무를 본처의 연구소 담당 관련 실·국으로 이관기로 했다.

과기처는 이번 직제개정에서 정원이 10명 늘게 됐으나 대덕연구단지관리소 인원 3명을 감축해 전체 인원은 7명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삼성항공, F-5 전투기 개조물량 수주

삼성항공은 F-5전투기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美 노드롭그라만社로부터 4250만 달러의 개조물량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 물량은 노드롭사가 미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억 7,000만 달러의 F-5 개조사업 물량 중 25%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현재 전투기 8대분의 날개를 납품키로 하고 제작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날개, 꼬리날개, 조종석, 동체구조물 등을 중심으로 세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동사는 지난 10월말에 F-5 성능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도입신고를 통산부로부터 수리받은 바 있다.

보잉-MD 합병설 무성

미국의 양대 항공기 메이커인 보잉사와 맥도넬더글러스가 비밀리에 합병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는 월스트리트저널 유럽판에서 처음 발표되었는데, 두 회사의 주식 시가 총액은 모두 350억달러로 이번 합병협상이 성사되면 사상 최대규모의 기업인수합병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상업용 민간항공기 시장에서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는 보잉사가 군용 전투기 분야의 선두업체인 MD사에 합병을 제의, 뉴욕에서 양측의 고위 경영진과 법률 및 재정고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담을 진행중이나 결과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고있다.

양 항공사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351억 달러인데 보잉사는 지난해 상용항공기 분야에서 158억5,000달러, 군

수 및 우주분야에서 47억4,000만달러, 기타분야에서 8억5,6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총 219억2,000만달러의 매출과 순수의 8억5,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MD사는 지난해 군수분야에서 78억달러, 상업용분야에서 31억6,000만달러, 미사일,우주,전자시스템 분야에서 18억8,000만달러, 기타 재생서비스 분야에서 3억3,000만달러로 총 131억6,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합병이 성사되면, 유럽의 에어버스컨소시엄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위성발사 등 상업용 우주시장의 판도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무궁화 예비위성 12월 23일 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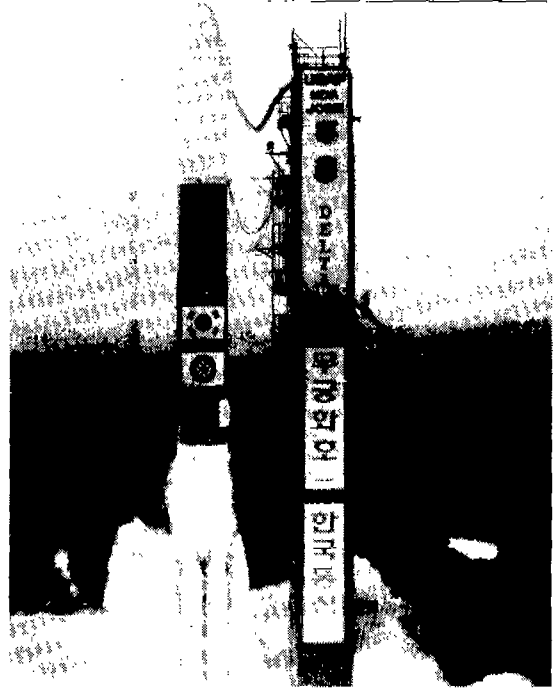
한국통신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열린 맥도널더글러스 및 록히드마틴과의 회의에서 무궁화 예비위성의 발사시기를 12월 23일 오후 7시12분-9시23분으로 정했다고 11월 22일 공식 발표했다.

현재 위성은 록히드마틴사에서 최종 성능시험중이며 발사로켓인 델타로켓도 12단 로켓이 발사대와 결합돼 있다. 위성체는 11월 29일 발사장에 도착한 후 12월 14일 로켓과 결합될 예정이다.

예비위성은 일부 방송용 주파수 대역과 채널수를 제외하면 주 위성과 비슷한 성능과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7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통신은 발사차질로 수명이 10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 주 위성을 전손처리기로 결정하고 11월 11일 보험사에 1억3,911만4,500만달러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주 위성은 수명이 단축되었으나, 중계기 성능 시험 결과 양호한 것으로 확인돼 내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8월 30일 정지궤도에 진입한 주 위성은 위성안테나의 빔 중심점 확인시험을 마치고 동경116도와 적도상공의 허용오차를 유지하기 위해 6회의 자세제어를 실시한 상태다.

한국통신은 또 99년 4월경 1호 위성과 동일한 재원의



무궁화 예비위성이 12월 23일 발사될 예정이다

중계기를 탑재한 무궁화 2호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DASA, Fokker사 경영 포기 검토

DASA사는 네덜란드 정부가 Fokker사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Fokker사의 경영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임러벤츠의 사장이며 전 DASA의 사장이었던 Schrepp씨는 "Fokker의 장래는 네덜란드 정부가 금년 내에 Fokker사에 대한 적절한 자금지원을 해주는 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자금 지원에 대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okker사는 약 10억달러의 현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DASA는 이미 8억달러를 지원했다.